영화 어게인
오디션 대본(주인공 아역, 아이들역)

각본 장혜경
연출 홍성창
제작 ㈜크리허브

#4 병원 복도 / 낮 (수화는 연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영이 폴짝 의자에서 내려와 만석의 손을 잡는다. 아빠다.
어린 수영 (수화) 보호자냐고 물어.
만석 (가슴을 치고 수화) 어떻게 된 거에요?
방형사 지금 수술 중인데 상태가 그러네요.
어린 수영 (수화) 상태가 좋지 않대.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나온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젓는 의사.
다가가 의사 가운을 잡는 만석.
만석 (수화)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어린 수영 돈 구해올게요. 살려주세요. 제발요.
간호사 장례절차는 원무과에서 진행하세요.
어린 수영 (수화를 하려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진다.)
만석 (수영을 보다 주저앉는다.)
방형사 저기요. 내 말 잘 들으세요. 아주머니가 무단횡단을 한 거 같아요.
차는 수배 중인데. 비도 많이 오고 목격자도 없어서 쉽지가 않네요.
어린 수영 (망설이다) 내가 봤어요.
놀라 수영을 보는 만석.
어린 수영 (수화) 그 차 내가 봤어.

플래시백. *수영의 시야에 순간, 정지되는 화면. 튀기는 빗물의 궤적, 그 사이로 검정승용차,*
어린 수영 (망설이다) 무천 아 6842. 검정색 차. 검은 모자 쓴 남자랑 남자아이가 타 있었어요.
방형사 너 정말이지. 거짓말하면 혼난다.
어린 수영 (끄덕이고) 네.

#11 놀이터 낮 (설이 회상)
엄마를 부르며 울고 있는 어린 설이. 누군가의 주먹이 설이 머리를 가차 없이 쥐어 박는다.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둘러쌓여 있는 설이, 다급히 어떻게든 저항하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덩치 큰 괴롭히던 아이들, 설이 엄마가 뛰어오자 두려워 달아난다.
엄마, 설이를 와락 감싸 안고.

엄마 괜찮아, 설이야. 괜찮아. 엄마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 어디 안 다쳤니?
설이 (설움 복받쳐 더 크게 울며) 엄마아!!
엄마 그래, 엄마야, 엄마. 괜찮아. 이제 괜찮아....(이마에 호~ 하면...)
설이 흑흑...(겨우 마음을 진정하며) 쟤들이...쟤들이 아무 이유 없이
설이를...(흑, 흑..)설이를... 미워해...(우왕 하고 크게 울음을 터뜨린다.)